

對人關係의 生心理學 :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視線

韓 基 台*

◇ 目 次 ◇

- I. 序論
 - A. 言語的 커뮤니케이션
 - B.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 II. 視覺機能의 複合性
 - A. 視覺作用에 依한 性轉換
 - B. 視覺記憶像의 重要性
 - C. 邪眼
- III.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視線의 意味
 - A. 好意性과 攻擊性的의 二面性
 - B. 對人關係의 始發點
- IV. 視線行動과 對人關係
 - A. 視線行動의 定義
 - B. 對話中 視線行動의 役割과 意味
- V. 視線의 病理와 對人關係
 - A. 視線 恐怖症
 - B. 視線의 異常性과 對人關係
 - C. 自己愛(narcissism)視線과 對人關係
 - D. 欺瞞의 視線과 對人關係
 - E. "Machiavellian" 視線—“賊反荷眼”
- VI. 神人關係(Intra-personal Relationship)의 視線
- VII. 結論

* 교수, 교육학 전공

I. 序 論

A. 言語的 커뮤니케이션 (Verbal Communication)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의 하나는 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일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언어를 意思소통의 매개체로 구사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체계화된 언어로서 개념이나 상징의 意思전달을 할 수 없다.

과학자들 역시 인간과 동물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 구사 능력과 개념적인 思考力이라고 말해왔다. 비록 최근 들어 많은 동물실험실에서 Gardner나 Premack 등에 의해 chimpanzee에게 언어를 학습케 하는 시도가 시행되었으나 chimpanzee들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실험해설의 資料는 chimpanzee들이 기호를 구사하면서 무엇을 思考하고 있었으며, 인간과 같이 자발적으로 熟考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 특징이 결여된, 구체적 記號化에 완전히 의존하는 취약점이 있지 않은지의 문제점들을 提起하게 되어 동물의 手法 기호화는, 예를들어 하나 님, 학문등 의미개념의 본질을 이해 못할 것이라는 의문들이 제시되고 있다.¹⁾

인간 특유의 記號化와 상징화 능력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局面에서 다른 동물과의 상이점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동물은 記號만을 사용하지만, 인간은 상징을 구사하고, 인간만이 기호의 기호화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전성에 의한 기호화의 전달에 있어서 인간은 특유한 존재이며, 동물은 기호화를 자발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反面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있고, 동물의 기호화는 知覺(perception)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기호화에 근거한 推理가 가능하고, 인간만이 목표대상으로서의 기호화에 관심이 있고, 언어는 인간의 특유성이라는 점 들이다.²⁾

반면에, 인간과 동물과의 유사점의 하나는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의 방법일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 역시 언어 대신 多樣多種한 身體言語나 소리로서 의사소통을 표시한다. 한 사례를 들어 “흡혈 박쥐의 소리는 의사소통의 신호”³⁾라는 박제용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박쥐들이 낚을 위협할 때, 공격할 때, 저항할 때, 아침할 때, 그때마다 내는 소리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音의 高低, 音의 強度등 물리적인 특성을 분류하여 그 소리의 의미를 모두 17가지로 파악한 것이다.

1) Cosgrove, M.P., *The Essence of Human Natur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pp. 54-55.

2) Morris, C., *Signs, Language and Behavior*, N.Y.: George Braziller, 1946, p. 53 참조.

3) 東亞日報, 1987, 2월 6일자.

言語와 소리를 커뮤니케이션化 차원에서 본다면, 言語가 소리의 人間化라고 한다면 소리는 言語의 動物化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B.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研究에 따르면,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언어 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느낌이나 감정도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 진다는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언어 표현만으로 의사전달이 충분할 경우도 있으나, 언어 표현의 貧困化로 인해 감정의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개인과 접할 때나 단시간에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視覺的인 또는 다른 신체언어의 단서를 활용하여 상대의 감정을 읽거나, 또는 자신의 意思를 전달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다. M.L. Patterson은 1983년 그의 저서 *Nonverbal Behavior: A Fundamental Perspective*에서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물론 channel에 따른 전달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의 기능을 ① 情報의 제공 ② 상호작용의 조정 ③ 친밀성의 포출 ④ 사회적 control의 실행(설득의 경우와 같이 他人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는 작용) ⑤ 서비스나 작업목표의 촉진(公的 역할에 근거한 생산활동을 촉구하는 작용)등 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⁴⁾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NVC) 중에서도 가장 原始的인 형태이며 또한 對人關係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은 視覺기능인 視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視覺機能의 複合性

그런데 視覺작용이 단순히 “본다”는 單一시각기능을 넘어선 복합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이로운 현상을 동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 많은 例 중에서 視覺작용으로 인한 性轉換과 邪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A. 視覺作用에 의한 雌雄相의 性轉換

紅海에 서식하는 魚類의 一種은 한 숫컷이 약20마리의 암컷을 거느려 하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을 水槽에 收容하여 숫컷을 除去하게 되면 남은 암컷중 가장 원기왕성한 것이 성장하여 雄相化한다는 것이 證明되고 있다. 다른 실험에서는 암컷만 收容한 水槽에서도 일주일이 경과하면 한 암컷이 숫컷으로 性轉換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더 흥미로운 實驗은 두개의 透明한 水槽를 相接시켜 설치한 후 한 便에는 여러마

4)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對人行動의 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1986, p. 212 참조.

리의 암컷, 다른水槽에는 한마리의 숫컷을 수용한 결과 相互視野 범위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암컷이 雄相化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두水槽사이에 장애물을 삽입하여 相互間의 視野를 차단한 결과 암컷水槽속의 한마리가 숫컷으로 전환, 즉 雄相이나 雌相發達은 특히 視覺介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실험으로 이러한 性轉換 現象은 視覺작용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⁵⁾

B. 視覺記憶像의 重要性

이러한 예를 통해 視覺이란 것은 동물계내 있어서 단일한 器官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視覺記憶像의 중요성 역시 시각 기능의 복합성을 시사하고 있다. 幼兒期의 원숭이는 특히 시각기억상의 有無에 따라, 성장후 交尾나 또는 새끼양육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들어 사회적으로 隔離된 숫컷 원숭이는 正常的인 交尾姿勢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mounting하는 정상적인 交尾姿勢는 숫컷의 발이 암컷의 발을 포착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못하고 발을 地面에 놓고 바르게 mounting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격리된 암컷 원숭이가 낳은 새끼를 양육 못하고 먹어버리는 例들이 報告되고 있다.⁶⁾

동물계에서 뿐만아니라 “보고 배우다”(“Learning by seeing”)란 교육원리를 통해 人間의 日常生活이나 人間관계에서도 시각작용의 복합성 기능이 실제로 경험 되어지고 있는 例들을 흔히 볼 수 있다.

C. 邪眼(evil eye)

인간 시각작용의 특이성의 한 例로서 邪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邪眼의 예증에서 본 역사적, 문학적 문헌에 따르면, 현재에도 南歐羅巴, 西아시아, 北아프리카에서 타인에게 不吉한 感を 惹起시키는 소위 邪眼이 盛行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呪力을 가지고 相對에 대하여 惡意를 품을때 邪眼이 되어 불행을 초래한다. Ireland에서는 古來로 탐욕, 憎惡, 질투의 邪念을 가지고 인간, 동물, 물체를 보면 害를 미치게 되고, 家屋들을 燃燒시킨다는 전설이 있으며, 小兒나 家畜은 반드시 병들거나 때로는 失命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災難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성의 性器像을 建立하고, 이빨을 검게 염색하거나 文身하는 것, 中東地方의 습관이 되어 있는 배일로 얼굴을 가리우는 것 등이 모두 災殃의 방지책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다.⁷⁾

5) 倉持 弘, 愛と嫉妬—感覺の精神醫學, 大阪: 創元社, 1982, pp. 192-193.

6) *Ibid.*, p. 194.

7) 福井康之, まなざしの心理學, 大阪: 創元社, 1984, pp. 12-17 참조.

Kearney는 邪眼의 관습이 있는 집단사회를 paranoid사회라고 命名하고 邪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어린이나 부인에게 피해자가 많고 弱者가 희생자가 된다. 惡意가 눈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는 힘이 되어 突然히 어디로서인지 출현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加한다.

② 그 피해는 신체내에서 病魔 또는 죽음을 초래한다.

③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서 발산되어 感染한다.⁸⁾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의 性格특징은 “본다”는 視覺機能에 의한 불합리한 魔性的의 작용을 무서워하는 妄想性人格장애자와 흡사한 것이어서 頑固하고, 내면의 폭로를 두려워 타인에게 대하여 과도하게 警戒心이 강하며, 그뿐아니라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를 認定하지 않는다. 또한 의혹심이 많고 질투와 선망이 강하므로 人間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이 악의를 품고 있다는 偏向된 판단과 責任전가로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性格으로 지적되고 있다.⁹⁾

邪眼을 선망의 視線으로서 十戒命과 관련시킨 R.C. Maclagan의 고찰은¹⁰⁾ 視覺機能과 人間관계의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邪眼의 發生源은 선망이기 때문에 第十戒命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¹¹⁾를 탐하는 者는 邪眼을 가진자란 뜻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第十戒命은 第八戒命인 “도적질 하지 말라”와 결부된 훈계이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탐욕은 도적행위를 유도한다. 도적 행위란 직접적인 손의 근육운동이지만 “본다”는 것은 직접 행동의 代理, 또는 豫備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다”는 시각작용의 복합성을 종교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示唆해 주고 있다.

III.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視線의 意味

A. 好意性和 攻撃性的의 二面性

상술한 바와 같이 視覺이란 것은 “본다”는 機能 이상의 작용을 한다. 그러나 日常生活의 人間관계 상황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과는 판이한 원

8) M. Kearney, “A world-view explanation of the evil eye” in C. Maloney, *The Evil Ey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p. 175-192 참조.

9) 福井康之, *op. cit.*, p. 26.

10) *Ibid.*, pp. 20-21 참조.

11) 출애굽기 20: 17.

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R.L. Birdwhistell은 1970년에 kinesics(動作學)란 학문을 創設하여 눈의 움직임의 관찰해서 기술하기 위해, 눈의 동작을 나타내는 14개의 부호를 구사하여 눈의 동작을 기록했다.¹²⁾ 인간의 두개의 눈은 어떤 종류의 cameroon과 같이 眼球를 個別的으로 움직여서 볼 수 있게 구조 되어진 것이 아니라 兩眼이 呼應해서 작업하여 결합된 제 3者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한 눈이며 따라서 視線은 한 方向性和 視點을 지니게 된다. 두 눈으로 두 지점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것이다.

視線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두사람이 상대의 눈을 보는 상호응시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시선행동이 어떤 경우에 惹起되고 어떠한 含蓄味가 있는가가 문제시된다. 즉, 인간 사이의 시선에는 상호관계성, 他者와의 관계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수반되는 것이다.¹³⁾ “눈이 만나서” 또는 “눈이 마주쳐서” 一體化 된다는 通俗的인 표현이 있듯이 시선은 二者가 신체적으로 융합해서 一體化 되는 애정의 극치에 도달하는 二者間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視線의 친밀성에 대하여는 他人에 대한 시선은 자기의 好意를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상대로 부터의 사회적 승인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Efran과 Boughton의 主張이 1966년에 연구 되었고, 1970년에 Hicks와 Gordon은 他人에 대한 視線은 상대로 부터의 好意的 평가를 求하는 意圖를 지닌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 있다. Rutter와 Stephenson은 1979년의 연구에서 友人보다는 親熟치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 시선時間量(duration)이 많은 것을 근거로 시선은 감정보다 정보수집의 기능을 주로 한 것이라고 했다.¹⁴⁾ 이 연구들은 모두가 시선에는 상대에 대한 호의를 전달하는 기능에 덧붙여서 상대로부터의 好意를 유발하는 기능을 포함한 상호성의 매체로서의 意味도 있다는 사실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Argyle¹⁵⁾과 Cook은 母子간의 好意性 시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인간은 乳兒期에 있어서 對面상태로 授乳되기 때문에 母親의 눈을 원점으로 해서, 視線은 친밀하고 따뜻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결합되어 性的誘引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시선의 好意性意味 반면에 쌍방의 관계가 애정아닌 분노나 증오와 같은 情動이 작용하면 그 시선은 일방적이고 응시는 공격적 sign이 되기도 한다.

12) R.L. Birdwhistell, *Kinesics and Context—Essays on Body-Mo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0, passim.

13) A. Mehrabian, *Silent Messages: Implicit Communication of Emotions and Attitudes*, 2nd ed.,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81. p. 31 참조.

14)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op. cit.*, p. 215 참조.

15) M. Argyle은 Oxford대학의 사회심리학자로 A. Kendon, M. Cook등과 함께 1963년에 研究 group을 형성하여 視線行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학자이다.

16) 福井康之, *op. cit.*, p. 35. 이와 관련하여 T.G.R. Bower는 유아의 視線은 단순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이란 관찰을 하고 있다. *A. Primer of Infant Development*, San Francisco: W.H. Freeman & Co., 1977, p. 34, 또한 pp. 56, 155도 참조.

이와같이 상호응시는 視線의 on 과 off 의 두 種類밖에 없고, 兩者間視線의 on과 off의 적절한 배합을 구사함으로써 여러 樣相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응시의 리듬이나 구정이 파문을 일으키게 되면, 兩者관계에 龜裂이 생겨나고 경제심, 不安,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유발시켜 대인관계의 決裂을 초래하게 된다.

B. 對人關係의 始發點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始發點은 두 인간사이의 視線의 만남에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간의 視線 그것이 상호간의 심정을 開放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對話로 發展하거나, 또는 상호간의 경제심을 惹起시켜 대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상호간의 시선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가 左右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G. Simmel은 시선이란 他人과의 커뮤니케이션을 開示하는 意志의 표현이라고 했고, J.P. Sartre는 視線의 一瞥은 개인이 상대를 지배하는 無言의 투쟁이라고 한다. 英國 Delaware대학의 R.V. Exline은 이 두 관점의 차이를 F. Heider의 理論을 도입하여 상황의 파악 차이로 보고, 이 차이는 personality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았다. 개인의 친밀성을 구하는 것은 타인과의 關係를 희망하는 것이며, 반면에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關係를 수치로 생각하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희망이다. 그러므로 前者의 경우에 視線은 행위의 共有, 關係성의 소유, 無言의 交流를 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後者는 친밀성의 低調에 따라 그 관계는 쟁투(combat), 意志의 충돌, 지배에로의 투쟁이 된다는 것이다.¹⁷⁾

IV. 視線行動

A. 視線行動의 定義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NVC)으로서의 시선행동에 관한 연구는 1958년 Heider가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란 저서를 통해 他者에 대한 知覺의 복잡한 關係를 분석하는 對人知覺(interpersonal perception)의 계통적인 이론을 출발시킨 이래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동물행동학(ethology), 문화인류학, 정신의학등 영역의 관찰 報告에 자극되어 활성화 되었다. 視線行動이 실험에 의해 數量化되어 記述 보고된 것은 Exline이 1963년에 “Exploration in the process of person perception:

17) 福井康之, *op. cit.*, p. 160 참조.

Visual interaction in relation to competition, sex and need for affiliation"이란 논문에서 3인의 대화 장면에서의 視線을 一方鏡에서 관찰 기록한 것이 최초이다.

Cranach는 시선행동(looking behavior)의 定義를 분류하여, 視線行動의 어느 측면이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다를 뿐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서 같은 시선행동도 다른 用語로서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一覽表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⁸⁾

1. 一方視(one side look) — 눈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他人의 얼굴 방향으로의 응시.
2. 顔面응시(face gaze) — 他人의 얼굴에 대한 일방적 응시.
3. 눈에로의 응시(eye gaze) — 他人의 눈에 대한 일방적 응시.
4. 상호응시(mutual gaze) — 二者間에 상호顔面에의 응시.
5. 눈의 交錯(eye contact) — 二者間에 서로 눈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가 상호응시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
6. 응시의 회피(gaze avoidance) — 상대의 눈을 회피하므로 他人과의 눈의 交錯이 생기지 않는 것.
7. 응시脫略(gaze omission) — 상대와의 눈의 交錯을 회피하려는 의도없이 상대를 보고 있지 않는 것.

이외에 시선행동의 用語로서 응시의 방향(gaze direction), 응시 운동(gaze movement), 一瞥의 시간량(duration of glance) 등이 있고, 시선의 방향(direction of the line of regard), 응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注視(stare)와, 直視(direct gaze), 固定視(gaze fixation)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되는 시선행동으로 표출되는 시선의 交錯判斷은 응시의 방향과 초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視線交錯의 原因論에 대한 一致된 보편 타당성 있는 理論은 아직껏 明示되지 않고 있다. 단지 發信者와 受信者의 顔面表情의 動情에 따른 미묘한 변화를 단서로 成立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즉 눈꺼풀과 눈썹의 動情이 결부되어 直視나 응시의 경우처럼 시선의 表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이 受信者에게 전달되므로 視線의 交錯이라는 것이 成立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推論이다.¹⁹⁾

이러한 행동과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보다 더 內面的 意識構造와의 연관성에 비중을 둔 연구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18) M. Cranach, "The role of orienting behavior in human interaction", A.H. Esser (ed.), *Behavior and Environment*, Plenum Press, 1971, pp. 217-237 참조.

19) 福井康之, *op. cit.*, pp. 167-168 참조.

B. 對話中 시선행동의 役割과 意味

通常,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顔面을 응시한다는 것은 上述한 상호간의 視線交錯상태이다. 이에 준하여 대화중에 있어서의 시선행동을 A. Kendon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²⁰⁾

제 1의 기능은 發言을 終結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受信者(청중)가 응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確認하는 monitor로서 monitoring의 역할을 한다.

제 2는 조정기능(regulation)으로서, 對話가 호의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상대의 시선행동에 의해 感知하여 상대가 積極的이며, 呼應的인 시선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조정해 나간다.

제 3은 無言의 표출(expressive)기능인데 대화의 적극적인 효과, 또는 소극적인 효과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작용이다. 이 對人的 태도의 표출기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接近—回避의 감정 표현이며 他人과의 관계, 親和性, 好意性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Argyle과 Cook는 3인 이상을 포함한 대화중에서 視線行動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²¹⁾

1. 發言者에 의한 긴 一瞥(glance)은 終止符의 信號이며, 또한 문법상의 단절이 된다.
2. 發言者의 一瞥은 특별한 語句를 강조하고 發言全體를 설득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발언에 대해서 어떤 種의 견해를 제시할 때는 표정의 변화가 수반된다.
3. 視線이 他人이나 다른 사물에 향해 있을 때는 다음 발언자의 차례임을 말한다.
4. 受信者(또는 청중)에 의한 一瞥은, 受信者의 관심이나 의욕을 표시한다. 視線의 回避는 興味の 결여나 불찬성을 의미한다.
5. 受信者의 一瞥이 발언의 어떤 시점 직후에 주어지면, 그것은 발언을 촉진토록 작용한다. 더욱이 發言者가 이어 발언을 계속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된다.
6. 受信者의 一瞥은 눈부분을 포함한 顔面 표정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눈썹의 上向은 놀라움의 표시이며, 최대한의 上向은 不信感을 표명한다. 눈썹의 下向은 困難性의 표시이며, 최대한의 下向은 분노의 표명이다.
7. 視線은 대인감정의 어떠함을 전달하는 하나의 信號이다. 그러나 一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량(duration)의 어떠함(長短)이나, 또는 다양한 안면표정을 수반하

20) A. Kendon, "Some functions of gaze direction in social interaction", *Acta Psychologica*, XXVI (1967), pp. 22-63,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op. cit.*, p. 201에 引用.

21) M. Argyle, M. Cook, *Gaze and Mutual Gaz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assim 福井康之, *op. cit.*, pp. 172-173 참조. M. Argyle, 對人行動의 心理, (辻正三, 中村陽吉 譯), 東京: 誠信書房, 1983, pp. 134-145 비교.

고 있는지의 如否뿐이지, 言語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권의 異質性에 따라 대화중 視線行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화 상대의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美國에서나 英國에서는 不誠實性을 나타내며, 中國, 인도네시아, 멕시코 等地에서는 무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缺禮가 되며, 눈을 감고 경청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례가 된다. 반면에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대화중 상대를 계속 直視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도리어 무례한 태도이며, 특히 年長者에 대한 경청의 뜻으로 눈을 감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행동이란 어디까지나 대화의 相補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대화중 시선행동의 “기본 원칙”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유력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異質的 문화권 사이의 대인관계 向上과 개선을 위한 有力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아신체장애자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시선만으로 대화는 계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될 수도 없는 것이다. 視線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經路와 연합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며, 단독으로는 단순한 sign으로서 밖에 구사 효과가 없다. 시선과 대화는 補償的 관계로 성립되어 대인관계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 明瞭化 되어 있다.²²⁾

V. 視線의 病理와 對人關係

A. 視線恐怖症

시선에는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장애적 요소가 되는 病理 현상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동기에서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로 移行해 가는 과정에서 他人의 시선을 극도로 과민하게 意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시선공포증이다. 시선공포의 本體는 他人의 시선에 의한 자기평가의 低落에 대한 두려움이며, 더욱이 그것은 자기의 능력, 資質등이 직접 感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태도나 표정등 신체의 부분이나 행위의 異變을 통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는 신경증이다.

시선공포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대인공포증의 경우인데 이것은 他人과 同席하는 경우 강한 불안과 精神的 긴장이 생겨, 그것으로서 他人의 혐오나 경멸을 誘發할 것이 아닌가 라는 心慮로 직접 타인의 시선이 쏠리는 대인상황을 기피하여 대인관

22)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op. cit.*, p. 206 참조.

계는 가능한限 回避하려는 病狀이다.²³⁾

대인공포증²⁴⁾에는 上司나 年長者 앞에서 긴장하는 年長공포증, 他人과의 對話에서 手足이나 목소리가 떨림으로 고쳐하는 震顫공포증, 안면이 硬化되는 표정공포증, 얼굴모습의 醜形으로 성형수술을 원하는 醜形공포등이 있으나 가장 평범한 대인공포증의 하나는 안면의 紅潮를 과민하게 意識하는 赤面공포이다.²⁵⁾ 이 공포증은 누구에게나, 또한 때로는, 그러한 상태가 惹起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면전체의 “紅潮化”에 대한 想像의인 타인의 관심과 意識을 과도히 意識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공포증들은 자신의 신체기능이나 특정부분의 主觀的인 異常性에 과민하게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다른 신경증과는 달리 아직껏 그 原因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정신분열증으로는 移行되지 않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²⁷⁾

앞서 열거한 것을 요약한다면, 이들 공포증은 은폐하려는 內面이 外面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며, 이러한 내면의 비밀이 자신의 시선을 통해 解讀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대한 공포감이 시선공포증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端的으로는 他人과 자신과의 시선의 만남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다.

笠原는 시선공포에는 자신의 異常的인 시선의 예리함 등이 타인에게 상처와 不快感을 준다는 자신의 시선기능에 기묘한 體感異常을 感知하여 대인관계를 回避하려는 病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自己視線恐怖”라 命名하여 타인의 시선에 자신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 하는 “他人視線恐怖”와 구별하고 있다.²⁸⁾

그러나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自己視線恐怖”는 “赤面恐怖”나 “他人視線恐怖”처럼 他人의 面前에서 견딜 수 없다는 自意識이 과잉된 체험양식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시선공포”는 內面の 비밀이 시선의 표면에까지 浸透되어 있어 자신의 통제가 不可能하지만 “他人視線恐怖”는 타인의 시선에 포착되지 않는限 內面的 비밀은 留保될 수 있다. 시선의 交錯回避를 통해 대인관계의 파탄을 회피하는 것에 열중하지만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西園는 대인공포증은 “신경증적으로 과잉 보상된 自我理想 때문에, 自己관찰이 강하고, 視覺的 image로 自我理想이 용인하는 自己像을 求하려 하고, 그러한 機制로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제 3者에게 masochistic하다고 승인될 만큼의 행동을 한다. 그러

23) L. Eidelberg (editor-in-chief), *Encyclopedia of Psychoanalysis*, N.Y.: The Free Press, 1968, p. 139 참조.

24) J. Melville, *Phobias and Obsessions*, N.Y.: Penguin Books, 1978, pp. 73-82 참조.

25) L. Eidelberg, *op. cit.*, pp. 309-311 참조.

26) 福井는 안면공포와 시선공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사춘기와 청년기의 자아성숙의 발달차이라고 보고 있다. *op. cit.*, p. 257.

27) *Ibid.*, p. 258.

28) 笠原 嘉는 1972년 그의 저서 正視恐怖·體臭恐怖에서 “自己視線恐怖”와 “自己體臭恐怖”는 타인이 자기를 소외한다는 體驗樣式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福井康之 *op. cit.*, pp. 256-257 참조.

한 자아감정의 신경증적인 방어는 幼少時, 주위의 과도한 支持, 수용, 찬사등 幼兒 narcissism의 만족을 강하게 구할 수 있었던 個人이 점차로 주위의 期待를 얻는 것으로서 정신적 안정과 자기의식의 안전을 企圖하려고 自我理想을 형성한 신경증적 대인관계의 소산²⁹⁾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인공포를 자기개념의 맥락에서 볼 때 자기개념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不一致로 인한 정서체험의 갈등에서 산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他人의 시선을 통해 認知하는 자신에 대한 모습이 자기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는 主體로서의 의식의 中核을 自我라고 하는데, 자기개념은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지만 또한 他人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자신으로서도 파악되는 것이므로 어느 程度의 객관성이 介在하는 것으로 自我는 의식 되어지는 것이다. 대인공포증은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개념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 자기개념의 不確定性에 대한 변민인 것이다.³⁰⁾

그러므로 대인공포증은 자기개념의 二重構造性에 있어서 理想과 현실의 自我像의 격차가 심해 自我가 그것을 통합하지 못하고 理想的 자아상과 절충되는 주관적인 자기개념을 구성하여 그것을 保留하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자아의식의 權化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인공포는 자기의식의 二重構造性의 不透明한 視覺的 表출이라고 할 수 있다.

B. 異常視線과 對人關係

시선의 異常性 그 자체는 현실의 왜곡된 知覺을 초래할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차단하는 장애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과혹한 현실을 직면한 自我가 이를 수용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히스테리性 盲人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視覺的 현오감에 기인한 무의식의 念願이 현실화 되어 視覺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실에 대한 자아방어가 한계를 넘으면 妄想의 세계에 安住하게 되고 外界의 자극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자신의 시선은 內面世界指向的이 되고 外面世界에 대한 外面과 더불어 他人의 시선에 대한 무관심이 촉발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他人의 시선으로 現前하는 自我 一面의 상실과 結付되어 독선적 주관의 세계, 즉 妄想과 환상의 세계에 단독者로 存在하게 된다.

29) 福井康之, *op. cit.*, pp. 263-264에 인용.

30) A.W. Combs & D. Snygg, *Individual Behavior*, N.Y.: Harper & Row, 1959, 특히 pp. 123-132 참조.

이것은 타인과의 더불어 세계에 대한 유대성의 상실이며, 동시에 對人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시선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Riemer가 診斷한 異常視線의 분류는 비록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再考의 여지는 있으나 視線樣式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示唆하고 있다. 그것은 視線에 표현되는 그 個人의 인품과 성품의 장해성 表출이기도 하다. 그는 視線의 異常性을 비교적 輕狀에서 重狀의 것으로 6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³¹⁾

1. 과잉 깜박임(excessive blinking)—눈깜박임은 보통 1분간에 10회 정도가 정상적이지만 그 以上 19-100회 정도의 빈도수는 異常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후에는 현실을 무시한 幼稚性 반응인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고 회피”하려는 念願이 있다.

2. 침체적 視線(depressive look)—절망적인 우울한 悲哀에 가득찬 시선으로 눈물을 수반한다. 支持나 원조를 구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완전히 自閉性的은 아니나, 그 시선에는 幼兒時 충족되지 않았던 兩親에 대한 애정의 갈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內面에는 적개심의 抑壓과 그것을 緩和하기 원하는 욕구가 混在한다.

3. 演技的 視線(dramatic gaze)—자신이나 他人을 기만하는 공묘로운 시선으로 幸福感에 찬, 오염한 시선이다. 그에게는 生活 그 자체가 演技이며, 진실미가 缺如되어 표면적이다. 放心的視線의 前단계이며 自己愛的(narcissitic)인 사람에게 빈번히 볼 수 있으며, 고통을 수반하는 사건에서 시선을 회피하고 자신의 劣等감정을 否定하려는 시선이다.

4. 監視的 視線(guarded gaze)—二面性이 있는 視線으로 他人에 대하여 치밀한 경계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동시에 자신을 엄중히 감시한다.

他人이 자신을 認定해 주지 않고 있다고 確信하고 주위에 감시와 시선을 게을리 하지 않으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표면상으로는 타인의 시선에는 경계심을 표명하지 않고, 명석한 理性的인 시선을 표시하는 듯하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內心 他人에게 거부 當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에 차 있다. 그 결과 惹起되는 他人에 대한 적개감정을 대치하는 것으로 代償하려고 支配的 태도로 행세하고, 경멸감을 품고 타인과 대화하고, 타인의 缺點탐색에 熱心이며 영리하게 행동한다. 이 시선은,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을 阻止하는 銳利性을 內有하고 있다.

5. 放心的 視線(absent gaze)—가장 異常性이 쉽게 表출되는 공허한 放心的 視線이다. 무감각한 人形처럼 고정된 視線으로 精神病的 sign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을 차단하는 壁을 형성한다. 타인의 욕구를 배제하기 때문에 격리된 自己世界の 인간이란 인상을 타인에게 주는 視線이다.

31) 福井康之, *op. cit.*, pp. 228-232 참조.

6. 忌避的 視線(averted gaze)—積極적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逃避하려고 하며 一切의 情動的인 것과 絶緣하는 것으로 責任에서 자신을 脫皮시켜 無爲主義로 安全을 유보하려는 視線이다.

이러한 病理性的의 시선이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은 臨床研究에서 여러 角度로 증명되고 있다. 자폐증 아동, 청년이나 成人의 정신 분열자, 조울증者, 간질병자 등에서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분열병자의 視覺的인 注意力 감소가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시선회피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시선의 異常性은 단순히 시선회피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 “正常人”과 비교한 실험연구에서 명료화되어 있다. 즉 “正常人”은 視野內의 대상을 전체로서 통합하여 의미를 부과시킴으로 그 의미화에 필요한 것만을 自然的으로 선택하여 보는 반면, 분열증자는 視線속의 자극을 선택적으로 知覺하는 것으로 莫然히 시선만을 돌리고 있을 뿐 外界의 의미성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으로 推想된다.³²⁾

J. Silverman에 따르면 분열증자의 시선행동, 注視點의 移動범위는 협소한데, 이것은 視野중심부 대상의 過大視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Piaget 이론에 근거한 Gardner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成人은 遠方의 대상을 視野의 중심에 두어 過大視 하지만 유아는 近方의 대상을 중심부에서 본다는 假設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선의 局限 범위가 협소한 사람이 넓은 사람보다 대상의 크기를 과대평가 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³³⁾ 따라서 이러한 病狀者가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이유는 視野內의 자극을 의미있게 秩序있게 파악 못하고, 중심부의 대상에 의식이 占有되어 局限된 대상을 과대하게 지각하고 주관적으로 편중되게 의미화 시키는 것에 精力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⁴⁾

C. 自己愛(narcissism) 視線과 對人關係

자기중심적인 또는 幼稚性 시선에 自己愛的인 시선이 있다.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narcissist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현재의 자신만이 그 대상인 것은 아니다. Freud는 narcissism 型的 대상 선택에는 ① 현재의 자기(자기자신) ② 과거의 자기 ③ 理想的 자기 ④ 자기자신의 일부였던 인물등 4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³⁵⁾

32) Ibid., p. 234.

33) J. Silverman, "The problem of attention in research and theory in schizophrenia", *Psychological Review*, 71, (No. 5), pp. 352,379 참조.

34) 福井康之, *op. cit.*, p. 238.

35) S. Freu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 XI, tr. by J.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73, pp. 217-220, 83-85. L. Eidelberg, *op. cit.*, pp. 257-260 참조.

Narcissist의 시선이란 他人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속에 반영된 자신의 映像을 일방적으로 주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만족을 손상시키지 않고 高揚시켜 주는 시선에 접근하고 거기에 자신을 노출시켜 아름다운 자신에 도취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意味를 내포한 시선과 자신의 일방적인 시선을 타파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 또한 자신의 바람직한 image를 반영시키기 위해 他人을 恣意로 지배하려 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³⁶⁾

이러한 시선을 가진 narcissist의 성격장애의 특징은 (narcissistic character-disorder),

1. 자신의 중요성과 獨自性에 대한 誇大化된 의식, 예를 들어 업적이나 기능의 과장, 자기問題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
2. 無限의 성공, 권력, 미모, 영광, 理想的의 愛가 내용이 되는 空想癖.
3. 不斷한 注目과 찬사를 요구하는 자기宣傳.
4. 비평이나 他人으로부터의 무시, 또는 挫折에 대한 반응으로서 냉담하게 無視하고 격노하는, 劣等感, 수치심, 모든 空虛感등의 격한 감정등의 특징들이 있다.³⁷⁾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로서 적어도 네가지 중 두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1. 相應하는 責任을 무시하면서 특별한 厚意를 기대하는 자만심, 예를 들어 자신의 기대에 應해 주지 않을 時 놀라움과 분노를 표시한다.
2.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 他人을 이용하고, 성실성 또는 他人의 權利를 무시하는 착취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3. 극단적인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반복하는 특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4. 他人의 감정에 대한 認知능력이 없는 共感性的의 缺損, 예를 들어 他人의 심한 심적상처로 인한 고통을 理解 못한다³⁸⁾는 것 등이다.

물론 이러한 진단기준은 표면화된, 관찰 가능한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인행동의 배후에는 자신이 타인에게 絶對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욕구불만과, 執拗하게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자신을 향한 自尊性에 대한 脫現實的 욕구를 볼 수 있고, 과도한 의존성, 사회적 미발달, 정신적 미성숙,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의 低調 등 때문에 円滑한 대인관계 형성의 困難性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아진다.

36) Ibid., p. 193 참조.

37) B.B. Wolman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iatry, Psychology, Psychoanalysis, and Neurology* Vol. 7, N.Y.: Aesculapius Publishers, 1977, pp. 437-439.

38) 福井康之, *op. cit.*, p. 195 참조.

D. 欺瞞의 視線과 對人關係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시선을 통하여 자신의 眞正한 意圖, 감정을 언제나 他人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欺瞞이란, 發信者의 입장에서 보면 참 意圖를 은폐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message를 허위의 표현을 통해 수용케 하려는 過程으로, 기호화와 그 解讀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發信者가 허위라고 認知하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믿게 하려는 행위로, 그 특징의 하나는 자신의 허위의인 성실성을 상대방에게 認知될 것을 기대하면서 眞意를 숨긴 message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기만의 연구대상으로 한 Ekman의 자기기만(self-deception)과는 別個의 것으로 他人에게 대한 기만은 기본적으로 意圖的인 행위임을 말한다.³⁹⁾

이에 준하여 특정한 제3者의 利得행위가 목적인 것처럼 가장된 發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3者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移植 시키려고 의도하는 “기모성(欺瞞性)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⁴⁰⁾ 이것은 여러단계에 걸쳐서 시선의 회피와 커뮤니케이션의 操作을 필요로 하게 된다.

Zuckerman, De Paulo, Rosenthal은 1981년 기만성과 시선관계의 연구에서, 기만에 수반되는 瞳孔擴大, 음성 pitch의 증대 등 覺醒수준의 高調를 나타내는 sign과 더불어 姿勢의 변화, 시선이나 미소의 감소, 부정적 발언내용의 증대등의 경향이 일반적인 특징인 것을 지적하였고, Druckman, Rozelle, Baxter등은 1982년 26種의 非言語행동을 지표로서 기만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만은 상대자 이외의 事物에 시선을 돌리거나, 상대자에게서 시선을 회피하는 것 등의 시선행동에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¹⁾

E. “Machiavellian” 視線—“賊反荷眼”

Columbia大學의 R. Christie가 設計한 Machiavellian Scale에서 “Machiavellian”은 공교롭게 他人을 기만하고 모략을 조종하는 것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方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믿지 않고, 자기 利益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⁴²⁾ 이들은 Exline이 발견한 것처럼 은폐해야 할 罪惡性的의 비밀이 있을 경우, 보통 타인

39)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op. cit.*, p. 220 참조.

40) “欺瞞性 커뮤니케이션”이란 필자의 新造語로서 意圖, 目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力學作用이 반동형성적인 특징을 띠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제3者에 대한 목적의 기만성과 수단적 표현의 不一致에 애매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뜻한다.

41)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op. cit.*, p. 220 참조.

42) 齊藤 勇 編, 人間關係の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1983, p. 145 참조.

에 대한 시선의 빈도수를 감소 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鐵面皮하게 상대를 직시, 응시하는 “賊反荷眼”格의 시선을 企圖하는 것으로⁴³⁾ 진지한 대인관계에 破綻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VI. 神人關係(intra-personal relationship)의 視線

기독교적 視角에서 볼 때, 대인관계의 시선보다도 더 원초적인 중요성의 意義를 지니고 대인관계의 본질을 再人間化시키는 것은 神人關係의 視線일 것이다. 그것은 과민성, 強迫神經증, 공격성, 불안감, 공포증, 자기 불확실성의 경향에 편중된 他人에 대한 불신감, 인간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 기인되는 인간의 시선이 아니고 內面的 정신세계에서 이룩되는 超視覺的인, 흥미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神의 存在와 관여되는 共感的一體化的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악성을 위해 묵묵히 十字架의 처형을 감수한 예수의 시선과의 만남은 인간이 希求하는 시선의 만남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선과의 만남에서 고차원적인 眞, 善, 美를 지향시키는 신앙심이 深化되고 인생의 깊은 희열과 행복의 실현을 기원할 수 있는 視覺的 예술이 구현되는 가능성과 실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영위를 위해 인간에게는 적극적인 대인관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기 중심주의의 應報는 궁극적인 고독감이기 때문이다.⁴⁴⁾ 시선 회피는 대인관계의 거부를 의미하고, 동시에 그것은 生의 主流로부터 자신을 分離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M. Buber가 지적 하듯이⁴⁵⁾ 인간과 神 사이에 I-Thou의 관계가 설정될 때 科學에서 宗教로, 自然에서 神으로 인간은 가장 심오한 神人關係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 神人關係가 대인관계를 고독성에서 구제하여 擴散시키고 거기에 의미성을 부여하게 된다.

神人關係는 자신의 視覺이 보이지 않는 시선의 現前이며, 神의 시선과의 만남이란, 肉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靈眼의 交錯인 것이다. 이러한 神人關係的 이해의 기초 위에 神과의 시선의 만남이 가능한 인간을 통해 사랑의 世界가 간접적으로 感知될 수 있고, 인간은 좌절감, 고독감,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Sartre는 他人은 視線이며, 시선은 지옥이라고 서술했으나 그가 말하는 타인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선의 不在를 의미한다.⁴⁶⁾ 神과의 시선의 만남이 교차되는 대인관계는 어떠한 시선을 因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시선의

43) M. Argyle, *op. cit.*, pp. 147-148.

44) E. Chesser, *An Outline of Human Relationships*, N.Y.: Hawthorn Books, 1966, pp. 429-430 참조.

45) M. Buber, *I and Thou*, 2nd ed.,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assim*.

46) 福井康之, *op. cit.*, p. 367 참조.

不在에 대한 어떠한 공포감도 介在되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진지한 인간의 關係性이 交流되는 대인관계가 조성되어질 것이다.

VII. 結 論

視線이란, 인간과 인간과의 유대감을 구축하는 가장 인간적인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媒體라고 보아진다. 시선이란, 言語만큼이나, 그뿐 아니라 때때로 언어 以上으로 정확한 감정과 의사전달을 可能케 한다. 이것은 인간의 認知구조가, 특히 그 視覺의 인지력만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동물과 엄연한 상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시선행동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며, 그것은 시각적 기능 以上의 것으로, 특히 대화에 있어서 그 역할은 相補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그것이 人品과 性品の 시각적 表출로서 好意的 또는 敵意的 대인관계 형성의 분수령이기도 한 것처럼 병리적인 異常시선 역시 그 개인의 病狀의 시각적 表출로 대인관계 형성의 가능성에 決定的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인간과 共存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선이 상호적 리듬을 기초로 한 대인관계는 기본적인 인간 存在 樣式化를 획득하는 필수조건이라고도 보아진다.⁴⁷⁾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인관계의 시각적 시선을 초월한 초시각적 존재와의 시선의 만남인 神人關係는 궁극적 I-Thou의 표상으로서 시선을 통한 인간관계의 共感의 一體感을 조성하는 基調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상호신뢰와 존경, 수용, 관용, 그리고 相互理解로 구축되는 사회나 집단의 成立은 神人關係의 정립이 대인관계에 先行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示唆해 준다. 그 理由는 不信, 질투, 시기, 의혹심, 이기심으로 침식된 視線集團의 필연적 소산은 시선의 相互性을 망각하여 “대화”가 두절된 病質的 사회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시선과 대인관계는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계속 연구가 진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의 동향중 그 연구의 一端으로 많은 학자들의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진 것은 母子間의 상호관계 기초로서의 시선의 연구이다. 특히 3세 이전의 인간 특유의 시선적 認知는 발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란 문제를 焦點으로 많은 論議들이 展開되기 시작했다.

시선과 같은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인간에게 遺傳 정보로서 出生 이전에

47) *Ibid.*, p. 155.

先天的으로 잠재된 본능적 행동이라는 연구들이 제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⁴⁸⁾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사회성 발달과 형성은 母子 관계가 아니고, 본래의 유전 정보에 의한 행동경향을 어떻게 억제하고 變形 하는가에 左右되는 문제가 된다. 이것은 종래의 연구 視點과는 정반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今後의 연구 진전에 따라 대인관계 연구시점의 급진적인 전환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視線과 대인관계의 연구 분야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不毛地帶이다. 그것이 今後 어떠한 視覺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분야에 던져진 큰 도전인 동시에 밀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8) L.M. McGinnis, M.C. Jones, A.H. Riesen, P. Salapatek, J.P. Kremenitzer, M. Wertheimer들에 의해 視線의 基本的인 모습은 生得的이라는 주장들이 多角度로 연구되어졌다.

참 고 문 헌

- Argyle, M.,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Behavior*, (辻正三, 中村陽吉譯) 東京 : 誠信書房, 1983.
- Argyle, M. & Cook, M., *Gaze and Mutual Gaz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Bower, T.G.R., *A Primer of Infant Development*, San Francisco : W.H. Freeman, 1977.
- Buber, M., *I and Thou*, 2nd ed., N.Y. :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Combs, A.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rev. ed., N.Y. : Harper & Row, 1959.
- Cosgrove, M.P., *The Essence of Human Nature*, Zondervan, 1977.
- Eidelson, L.(editor-in-chief), *Encyclopedia of Psychoanalysis*, N.Y. : The Free Press, 1968.
- Esser, A.H.(ed.), *Behavior and Environment*, Plenum Press, 1971.
- 福井康之, *まなざしの心理學*, 大阪 : 創元社, 1984.
- Jackson, F., *Perception*, London, N.Y., Melbor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倉持 弘, *愛と嫉妬—感覺の精神醫學*, 大阪 : 倉元社, 1982.
- Koteskey, R.L.,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韓基台譯), 소망사, 1982.
- Maloney, C., *The Evil Ey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 Matson, F.W. & Montagu, A.(eds.), *The Human Dialogue*, N.Y. : The Free Press, 1967.
-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Y. : McGraw-Hill, 1965.
- Mead, G.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5.
- Mehrabian, A., *Silent Messages*, 2nd ed., Wadsworth, Inc., 1981.
- Melville, J., *Phobias and Obsessions*, N.Y. : Penguin Books, 1978.
- Montagu, A., *On Being Human*, N.Y. : Hawthorne Books, 1966.
- , *The Humanization of Man*, Cleveland, N.Y. : The World Pub. Co., 1962.
- Morris, C., *Signs, Language and Behavior*, N.Y. : George Braziller, 1946.
- Morris, D., *Intimate Behavior*, N.Y. : Random House, 1971.
- Reid, C., *Groups Alive—Church Alive*, N.Y., Evanston, London : Harper & Row, 1965.
- 齊藤 勇 編, *人間關係の心理學*, 東京 : 誠信書房, 1983.

- Stowe, E.M., *Communicating Reality Through Symbols*, Phila. : The Westminster Press, 1966.
- 對人行動學研究會 編, *對人行動の心理學*, 東京 : 誠信書房, 1986.
- Wolman, B.B.(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iatry, Psychology, Psychoanalysis, and Neurology*, Vol. 7, N.Y. : Aesculapius Publishers, 1977.